

“밥은 하늘이다” 했는데 밥 한 공기 껌값도 안 돼



밥이 진심
밥심이 쌀심

<1> 쌀은 억울하다

쌀은 억울하다. 파종부터 수확·생산까지 무려 88번(米)에 걸친 농부의 정성이 깃들여져야 식탁에 오른다는데, 길러진 정성만큼 제 값을 받지 못하고 있다. 흰 쌀 밥 한 공기는 껌값에도 못 미친다. 한 때 없어서 못 먹는 게 쌀밥이었다. 이제는 못 먹어서 난리다. 전국 최대 쌀 재배지역인 전남 농민들의 불안감은 더 크다. 정부의 무능함에 대한 비판도 높다. ‘밥이 진심, 밥심이 쌀심’을 주제로 5차례에 걸쳐 쌀 소비 촉진을 위한 기획물을 신는다.

쌀은 한국인의 ‘주식’이다. 육류 소비량(60.6kg·2023년 기준)이 쌀 소비량(56.4kg·?)보다 많아졌지만 여전히 밥에 진심이고 ‘밥심’으로 사는 게 한국인이다. 동학 교수 최시형도, 시인 김지하도 ‘밥은 하늘’이라고 했다.

그만큼 중요한 순간마다 밥, 쌀이 빠진 밥이 없었다. 세 끼를 주식으로 먹으면서도 특별한 날 별식으로 또 먹었다. 생일이면 흰쌀밥에 미역국을 먹는다. 산모도 흰쌀밥과 미역국을 먹었다. 죽어서도 먹었다. 저승에서도 굶지 않기를 기원하며 입에 쌀 한 술 넣어주고 저승사자에게 사자밥을 대접하며 망자를 부탁했다. 제사상에도 정성껏 차린 밥을 올렸다. 집 떠난 자식을 걱정하는 어머니는 정한수와 쌀 한 그릇을 놓고 빌었다.

삼시세끼 먹으면서도 풍족하지 못해 늘 굶주렸던 백성들은 기회만 되면 배가 터지도록 먹고서야 손가락을 놓았던 때도 있었다. 벼농사가 시작된 이래 극심한 쌀 부족에 시달렸던 일제 강점기 때는 잡곡밥도 못 해 먹고 죽으로 연명하기도 했다.

그 쌀, 그 쌀밥이 달라졌다. 천덕꾸러기, 애물단지, 푸대접을 받는 신세로 전락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양곡소비량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56.4kg, 전년(56.7kg) 대비 0.3kg(0.6%) 줄었고 역대 최저치다. 국민 1인당 돼지·소·닭고기 등 3대 육류 소비량

(2023년 추정치 60.6kg)은 쌀 소비량을 넘어섰다.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지난 1984년(130.1kg) 이후 감소세가 멈추질 않는다. 지난 1990년 처음으로 110kg대에 접어들어 1998년에는 99.2kg을 기록하며 두자릿수로 내려앉았다.

국민 한 명이 먹는 하루 쌀 소비량도 역대 최저치다. 지난해 1인당 하루 쌀 소비량은 평균 154.6g으로 전년(155.5g)에 견줘 0.9g(0.6%) 감소했다. 즉석밥(210g) 한 개도 하루에 먹지 않는 셈이다. 쌀 한 가마(80kg) 가격이 지난달 25일 기준 17만 9516원으로, 지난해 5월(17만 8345원) 이후 1년 2개월 만에 17만원 수준까지 하락했다.

20kg짜리로는 4만 4879원 수준이다. 비릿값·농자재값·인건비 등 폭등한 생산비를 감안하면 쌀 100g 정도인 밥 한 공기에 최소한 300원은 받아야겠다는 게 농민들 심정이다. ‘껌값’, ‘커피 한 잔 값’도 못되지 않냐는 농민들 요구, 정말 무리할까.

이런데도, 식당의 ‘공깃밥=1000원’ 공식은 깨졌다. 인건비·가스비·전기료 등이 오른 영향이 크지만 쌀 산업 현실을 감안하면 1500원을 적어놓은 메뉴판이 야박하게 보일 정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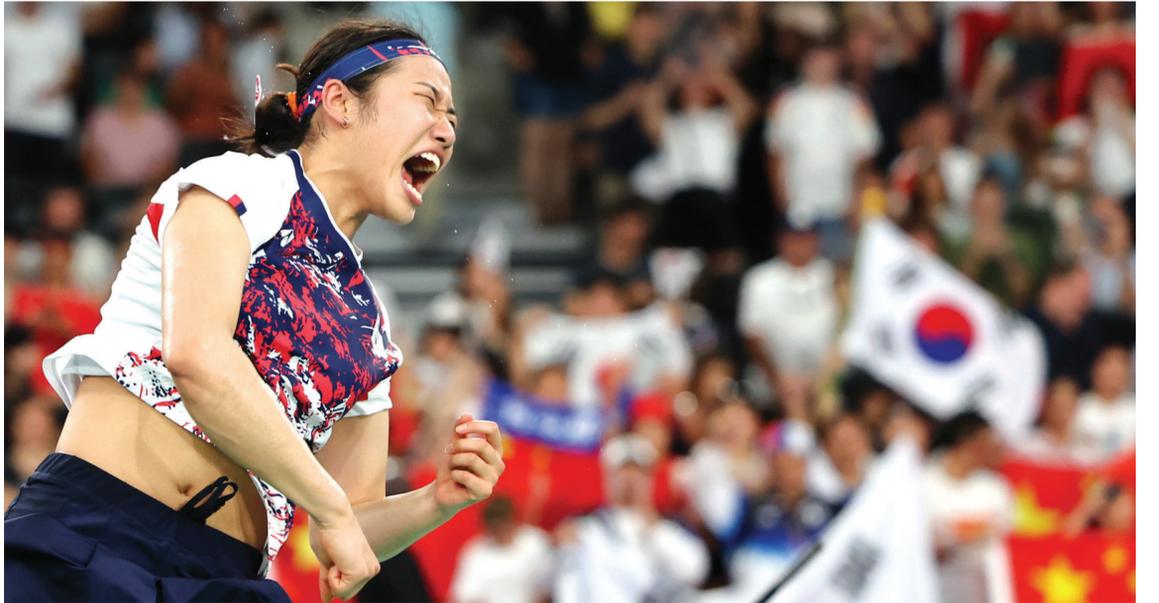
농민들은 쌀 소비량이 줄어든다고 해서 정부 지원금도 재배면적도 줄었다. 전남의 경우 벼 재배면적이 14만 9878ha(2023년 기준)로, 2021년(15만 5435ha), 전년(15만 4679ha)보다 줄었다. 면적이 줄었으니 생산량도 78만 9650 t(2021년)→74만 2913 t(2022년)→73년 6985 t으로 감소했다. 그래도 재배면적, 생산량 모두 전국 1위다.

농민들 입장에서 정부는 하라는 대로 묵묵히 벼 농사 지어온 것밖에 없는데, ‘쌀값 폭락을 왜 농사 짓는 농민들과 쌀 많이 안먹은 국민들에게 돌려느냐’며 하소연이 나올 수밖에 없다.

서삼석(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은 최근 국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향해 “농민들, 어민들한테 휴가 언제 가나고 물어보면 뺨 맞을 얘기 아니냐”고 반문했다. “농민들도 법 앞에 평등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싶다고 아무 때나 수입할 수 없는 식량 안보 측면을 고려하면서 농업·농민·농촌이 유지될 수 있도록 소득 보장 차원의 정책 지원을 해달라는 것이다. 애초 약속한대로 쌀 한 가마 값을 20만원대로 떠받치겠다는 의지를 보여달라는 요청이다.

박형대(진보·장흥 1) 전남도의원은 “국내의 쌀산업 현황, 국제 식량 자급률 등을 살펴 어려움에 처해있는 쌀 산업 활성화를 위한 아침밥 먹기 캠페인 등 소비 촉진, 친환경·고품질 쌀 생산 및 미국종합처리장 지원, 발작물 기계화율 향상, 유통·판매 분야 대책 등을 마련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5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포르트 드 라 샤펬 아레나에서 열린 2024 파리올림픽 배드민턴 여자 단식 결승전에서 한국 안세영이 중국 허빙자오를 이기고 우승을 확정짓고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셔틀콕 여왕 안세영 ‘파리 대관식’

배드민턴 28년 만에 단식 금...장성 출신 조영재 사격 은메달



‘세계 랭킹 1위’ 안세영(22·삼성생명)이 파리에서 대관식을 치렀다. <관련기사 3·18면>

안세영은 5일 프랑스 파리 포르트드라샤펬 아레나에서 열린 2024 파리 올림픽 여자 단식 결승에서 중국의 허빙자오를 2-0(21-13, 21-16)으로 꺾고 금메달을 차지했다. 1996년 애틀랜타 대회 방수현에 이어 여자 단식에서 28년 만에 다시 칸 금메달이다. 안세영은 파리에서 대관식을 하면서 올림픽·세계선수권·아시아게임·아시아선수권을 모두 석권하는 ‘커리어 그랜드 슬램’을 완성했다. 안세영은 이번 대회를 통해 적수 없는 세계 1위임을 증명했다. 나주 이창동 출신인 안세영의 역사는 초등학교 1학년 당시 아버지를 따라 배드민턴 동호인 클럽

을 다니며 시작했다. 아버지 안정현 씨는 안세영의 남다른 배드민턴의 실력을 보고 나주 중앙초 1년 때 광주 풍암초로 전학을 보내 ‘배드민턴 스타’ 이용대의 스승인 최영호 감독에게 본격적인 가르침을 받게 했다.

이후 안세영은 광주체중-광주체고를 졸업한 후 삼성생명에 입단했다. 코로나19로 1년 미뤄 2021년에 열린 도쿄 올림픽 당시 안세영은 배드민턴 종목 최연소인 ‘19세’의 선수였다.

단식 8강에서 안세영은 중국 천위페이에 0-2로 패하며 아쉬움의 눈물을 흘렸다. 패배를 보약 삼은 안세영은 2년 뒤 다른 선수가 됐다. 지난해 열린 항저우아시아게임에서 단체전과 단식까지 2관왕에 올랐다. 특히 단식 결승전에서 천위페이를 만난 안세영은 2-1 승리를 거두고 도쿄 올림픽 설욕전을 펼쳤다. 특히 무릎 부상에도 포기하지 않

은 ‘부상 투혼’을 선보이면서 감동을 선물하기도 했다.

남다른 천재성에 근성이라는 특급 무기로 매년 성장한 안세영은 지난달 두바이에서 열린 2024 배드민턴 싱가포르오픈 대회에서 2년 연속 우승을 차지하며 올림픽 랭킹에 따라 1번 시드를 확보한 뒤, 올림픽 챔피언에 등극했다.

앞서 4일 진행된 양궁 남자 개인전에서 김우진(청주시청)이 미국의 브레이디 엘리슨을 아웃프 점전 끝에 6-5로 누르고 금메달을 차지했다. 김우진은 한국의 파리 올림픽 10번째 금메달 주인공이 됐다.

한편 한국은 이날 사격에서 은메달을 추가했다. 장성 출신 조영재(25·국군체육부대)가 사격 남자 25m 속사권총 결선에서 나서 25점을 쏘면서 은메달을 차지했다. 속사권총에서 나온 한국의 첫 메달이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코스피 ‘최악의 날’... 234P 폭락

코스피가 5일 미국발 경기 침체 공포로 8% 넘게 폭락하면서 ‘최악의 하루’를 보냈다. 종가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하락폭이다. <관련기사 8면> 코스피 지수는 이날 전장 대비 234.64포인트

(8.77%) 하락한 2441.55에 거래를 마쳤다. 지수는 전장보다 64.89포인트(2.42%) 내린 2611.30으로 출발해 가파르게 낙폭을 키우며 2600선과 2500선을 차례로 내렸다. 이날 오후 2시 14분께

8% 넘게 내리면서 유가증권시장에 ‘셔틀브레이크’가 발동, 거래가 20분간 일시 중단되기도 했다.

거래 재개 직후에는 코스피 지수가 10% 넘게 내리면서 잠시 2400선이 붕괴되기도 했다. 이날 코스피 최저치는 282.23포인트 내린 2386.96이다. 코스닥 지수도 이날 전장 대비 88.05포인트(11.3%) 하락한 691.28에 마감했다. /연합뉴스

사랑과 감사의 70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4]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THE NEW GENERATION
윤조에센스 6세대

Sulwhasoo